

설계감리자와 공사시공자

WORKING THINKING

Supervisor and Constructor

by Kim, Yung Seok

66 사회가 점점 발달하다 보면 기구나 제도의 신설이나 확대가 불가피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 사회학자도 지적했듯이 현대사회는 필요 이상의 기구확대와 비례 속에 자신도 모르는 비만증 환자와 같이 되어가고 있다. 감리공단과 같은 외적 행정수단에 의하려는 문제해결방식 보다는 현재 여건하에서 여지껏 실행할 수 있었으면서도 실행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99

급속히 발전해 가는 현대 사회는 그 속성에 따라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져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욱 심화될 것은 분명한 일이며, 여기에 필연적으로 현대사회는 각 분야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건축사들도 이러한 전문성의 일익으로서, 그 중에서도 인민주거 공간의 창조라는 더없이 숭고하고 소중한, 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하겠다. 그런데 요즘 건축공사의 대형사고를 접할 때마다 같은 종사자로서 부끄러움과 함께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수습 대책으로써 사고 원인의 규명과 함께 그 책임소재를 가리게 되는데, 감리자의 책임을 물어 법적 절차까지 가느냐, 마느냐, 또는 감리업무의 근본 대책으로 감리단을 두어야 하느냐, 마치 감리자가 사고의 모든 원인인양, 책임의 전부인양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물론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감리업무가 건축물의 완성도에 있어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건축공사에 있어서 공사 시공자와 설계 감리자 (설계감리가 구분되는 모순된 경우도 있지만)에 대한 전문성과 그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전문성이란 어떤 한 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고도의 지식을 축적하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특수한 일에 대해서, 전문성있는 사람들이나 기관은 그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며, 맡은 일에 대해서는 신뢰와 책임감을 가지고 완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에 공사 시공자와 설계감리자는 같은 건축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행위의

전문적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우리는 건축 공사에서 시공자와 설계감리자와의 전문성에 있어서 종직관계가 아닌 횡적 관계의 동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사고발생에 따른 책임도 각기 고유의 전문 영역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시공상의 문제까지도 설계 감리자가 책임을 져야만하는 고독하고 힘없는 속죄양이 되어버린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더우기 우리의 이런 마음 뒤에는 건축 설계자치고 자기 작품을 감리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만큼 애착심과 조심성을 갖고 시공과정을 지켜보는 사람은 또 없기 때문이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고 있을 때 수술의 성공을 비는 환자의 보호자 마음과 마찬가지로 하겠다. 예를들어 산모가 전문의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고 출산에 들어갔을 때 보호자인 남편은 산모와 태아가 제대로 출산·출생하는가를 걱정스럽게 지켜 볼 뿐이지 전문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전문의는 이미 그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출산과정을 살펴보는 보호자인 당사자 외에 그 어느 삼자 누구도 출산과정을 지켜보고 간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시공 또한 전문 시공자에게 그 어느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역시 시공기술에 있어서는 전문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설계 감리자가 시공의 질을 좌우하는 공사 감독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시공상의 책임까지도 짊어져 온게 아닌가 하며 설계감리자 스스로도 기술적 감독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설계감리란 설계자와 건축주간의 부단한 협의와 설계자의 각고 끝에 나타난 설계도를 시공전문자가 충실히 시공하는가를 확인하는 설계행위의 연장이지 시공 기술의 지도와 감독은 아니다.

혹자는 건축물의 하자 또는 사고발생이 당초 설계상에서 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은 설계자에게 있는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계와 시공과의 근본적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설계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시공전문가의 견지에서 문제점의 보완을 설계자와 협의, 시정케하는 것이 진정한 엔지니어이며, 또 진정한 엔지니어라면 이러한 의무와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시공자는 설계에 대한 시공능력과 이해력이 따르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건축주도 설계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춘 시공전문가를 찾는데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그러나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 건축공사의 하자나 사고 발생요인은 이미 시공 전문업체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가운데 다만 그것이 표면상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

그 이유로는 시공업체가 기술인력의 구성을 들 수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시공회사체제가 기술직 보다는 일반 관리직이 수나 비중에 있어서 더 크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기술직은 형식상 필요한 면허자격의 수를 채우는 식인데, 이와 더불어 시공업체간의 과당 경쟁이 따른 출혈수주는 시공회사 자체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질을 더욱 저하시키는 요인이라 하겠다.

물론 이러한 수주제도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점차 개선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며, 앞서 말한 질적인 기술 인력의 확보도 거기에 따른 보수와 대우 등의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모두 설계 감리자에게 있는양, 감리공단의 신설(다행히 백지화 되긴 하였지만) 등과같이 제도나 기구에 의해 해결하려하는 생각이 생겨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생각은 문제해결의 방향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연목구어적인 발상이라고 하겠다.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치료하다가 실패했을 경우를 보자. 이 경우 수습대책이나 책임은 의사 자신에게 있는 것인지 그 누구에게 있겠는가? 또 연초에 세계인의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던 미국의 유인왕복 우주선 “챌린저”호 폭발사건을 상기해 보자. 이 사고에 대한 수습대책과 해결도 미항공우주국(NASA) 자체에 또 누가 있겠는가?

이와 같은 비유가 비약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생명을 다룬다는 점이나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라는 점에서 인간주거 공간을 창출하는 건축활동 또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건축 공사의 사고 발생에 대해서만은 다른 외적 기구에 의해 해결하려는지 모르겠다.

사회가 점점 발달하다 보면 기구나 제도의 신설이나 확대가 불가피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 사회학자도 지적했듯이 현대 사회는 필요 이상의 기구확대와 비대속에 자신도 모르는 비만증 환자와 같이 되어가고 있다. 감리공단과 같은 외적 행정 수단에 의하려는 문제해결방식보 보다는 현재 여건하에서 여지껏 실행할 수 있었으면서도 실행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행할 수 있는지 하는 내적인 문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문제해결방식일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설계나 감리를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설계 바로 그사람이며, 건물을 짓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시공자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이다.